

스터디 가이드


音のない3.11

被災地にろう者もいた

소리없는 3.11

지진피해 지역에도 농인이 있었다





音のない3.11

被災地にろう者もいた

소리없는 3.11

지진피해 지역에도 농인이 있었다

목차

p.03 감독의 메시지

p.04 「소리 없는 3.11」의 개요

p.05 10가지 질문

p.06 지진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대피하기 위해
~농인인 당신에게~

p.07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서로 돕기위해
~청인인 당신에게~

p.08 지진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피하기 위해 (해답 예)
~농인인 당신에게~

p.09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서로 돕기위해 (해답 예)
~청인인 당신에게~

p.10 해설
들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의사소통 방법

p.11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경험한 농인의 수기

감독의 메시지

이마무라 아야코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46분. 저는 카리야시에서 업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흔들려서 텔레비전을 쫓았습니다. 화면에 비친 것은 미야기현의 바다. 하지만,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진은 흔히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마을을 덮치는 쓰나미 장면이 뜨고, 실종자 수가 자막으로 크게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알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로부터 텔레비전이나 신문에는 날마다 지진 재해가 보도되고,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날로 늘어갔습니다. 피로운 마음으로 텔레비전과 신문을 보는 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토호쿠 지방에도 들리지 않는 농인·난청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소식은 거의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사한 걸까? 지원의 손길은 닿고 있는 걸까? 저는 농인·난청인을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상영 및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에 사는 농인의 실태를 사회에 알리고 싶어서 지진이 일어난 날로부터 11일 후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들리지 않아 죽은 농인도 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지진 한달 후의 후쿠시마 취재 중에 저 또한 진도 6의 여진을 경험하고,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것도 모르는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현재 일본은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정보통신기기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 그 편리함에 놀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일본이지만 농인에게는 지금도 쓰나미 경보나 피난 권고 등의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정보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지진뿐 아니라 요즘은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저는 2012년 6월까지 피해지역을 7번 취재하였습니다. 취재한 테이프는 46시간! 전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생명과 관련된 정보에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23분으로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소리없는 3.11' 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번 취재는 농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지만, 피해지역의 취재를 통해 모든 장애인 및 재일외국인들도 재해시의 대응에 있어서 불안을 안고 있음을 봐 왔습니다. 이 DVD를 통해 여러분이 장애인과 재일외국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시민전체의 방재의식이 더욱 확충되기를 바랍니다.

音のない3.11のあらすじ

소리없는 3.11 의 개요

주인공인 키쿠치 노부코씨(농인)는 미야기현의 남쪽 태평양 해안에 위치한 이와누마시에 살고 있습니다. 노부코씨는 지진이 났을 때 동네사람이 쓰나미가 오니까 대피하라고 몸짓으로 알려준 덕에 피난했습니다. 곧이어 집이 쓰나미로 떠내려 갔습니다. 만약 동네사람이 노부코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노부코씨 부부는 쓰나미로 생명을 잃었을 지도 모릅니다. 대피소에서 가설주택으로 옮긴 노부코씨를 1년간 취재하면서 농인이 직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10가지 질문

학생들이 영화를 회상하며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10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 1 3월 11일 농인인 키쿠치씨 부부와 와타나베씨 부부는 쓰나미로부터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피할 수 있었을까요?
키쿠치씨 부부 [02:52~03:17] 와타나베씨 부부 부부 [18:29~19:02]



- 2 쓰나미가 덮은 후에도, 이발소 농인 부부는 피난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왜 대피 하지 않았을까요?
[04:38~05:11]



- 3 미야기현 농아인협회에서 농인 회원들의 생존 확인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05:47~07:26]



- 4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사는 농인 주부는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습니까?
[08:15~08:37]



- 5 진도 6의 여진이 발생하였을 때 농인인 감독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08:37~09:52]
- 6 4월에 감독이 취재를 위해 노부코씨가 사는 대피소를 방문하였을 때, 어떤 문제점을 느꼈습니까?
[11:06~11:37]
- 7 미야기현 농아인협회에 게시되어 있던 미야기현의 지도에 표시된 파란색 동그라미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12:23~12:40]
- 8 8월에 감독이 취재를 위해 노부코씨가 사는 가설주택을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5:21~16:08]
- 9 기숙사에서 피난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미야기현립 농학교 선생님은 무엇을 하였습니다?
[17:19~17:57]
- 10 미야기현립 농학교 동창회 회장 부부는 가설주택에서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까?
[19:03~19:58]

지진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피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 ① 자신이 농인이라는 것을 동네, 직장, 학교 등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 ②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평소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지진이 났을 때

- ③ 지진이 가라앉은 후, 우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

- ④ 대피소로 이동할 때 무엇을 챙겨가면 좋을까요?

()

대피소·가설주택에서

- ⑤ 대피소나 가설주택에서 자신이 농인임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

- ⑥ 대피소나 가설주택에서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는 등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의사소통 문제도 생기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서로 돕기 위해

당신이 농인의 입장이 한 번 되어 봅시다.

일상생활 속에서

① 길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기분이 들까요?

()

② 전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온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지진이 났을 때

③ 지진이 났을 때 농인이 곤란해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

④ 위의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대피소·가설주택에서

⑤ 대피소나 가설주택에서 농인이 곤란해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

⑥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Answer]

지진이 났을 때 스스로 대피하기 위해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재해 참조 행동요령 을 참고로 서로 의견교환을 하여 함께 재해방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상생활 속에서

- ① 자신이 농인이라는 것을 동네, 직장, 학교 등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대화는 필담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한다.

- ②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평소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 대피장소, 가족과의 연락방법, 휴대폰에 의한 재해긴급연락법 등을 확인해 둔다.

지진이 났을 때

- ③ 지진이 가라앉은 후, 우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정보를 파악한다. 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텔레비전의 자막이 없을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다. 정보나 피난방송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방송내용을 동네사람에게 필담으로 알려달라고부탁한다.

- ④ 대피소로 이동할 때 무엇을 챙겨가면 좋을까요?

예) 필담도구(종이, 필기노트 등), 보청기 건전지, 복지카드 등

대피소·가설주택에서

- ⑤ 대피소나 가설주택에서 자신이 농인임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예) 담당자에게 상의한다. 자신의 장애에 대한 게시문을 붙인다.

- ⑥ 대피소나 가설주택에서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는 등,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의사소통 문제도 생기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방송내용을 글로 적어 달라고 하거나, 수화통역사 파견을 부탁한다.

[Answer]

지진이 발생할 때 서로 돕기 위해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재해 참조 행동요령 을 참고로 서로 의견교환을 하여 함께 재해방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합니다.

당신이 농인의 입장이 한 번 되어 봅시다.

일상생활 속에서

① 길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 농인인 나에게 알기 쉽게 길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까 하고 불안해 진다.)

② 전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온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필담으로 자신이 농인임을 알리고 안내방송의 유무를 물어본다. 방송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지진이 났을 때

③ 지진이 발생했을 때 농인이 곤란해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경보가 울리고 있는 지도 모른다.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는 지도 모른다.)

④ 위의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 필담이나 몸짓으로 경보·안내방송의 내용을 전달한다.)

대피소·가설주택에서

⑤ 대피소나 가설주택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농인이 곤란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설명, 식량 배급 등의 안내방송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⑥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 농인이 있음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방송내용을 종이에 써서 게시하는 배려를 부탁한다. 필담이나 몸짓으로 대화 상대를 해준다.)

해설

들리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

들리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력의 범위와 청력을 상실한 시기 및 수화의 사용여부에 따라 용어가 다릅니다.
당사자한테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청각장애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행정용어로 주로 쓰인다.
- [**농인**] 일상생활에서 수화를 주로 사용하며 청력 손상이 큰 사람. 문화적인 의미도 함축하고 있으며, '농인'대한 상대적 용어로서 귀가 들리는 사람을 가리켜 '청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 [**난청인**] 청력 손실이 가벼운 사람을 가르키지만 손상 정도가 낮아서 전화가 가능한 난청인도 있다.
- [**중도실청자**] 음성언어를 획득한 후에 청력이 떨어지거나 청력을 상실한 사람을 가르킨다.

의사소통 방법

들리지 않은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서로가 가능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봅시다.

- [**수화**] 농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 [**구화**] 상대방의 입모양과 움직임을 읽으면서 자신의 음성으로 대화하는 방법
- [**필담**] 종이나 필기노트에 적는 방법.
땅에다 쓰거나, 글 대신 그림으로 전하는 방법도 있음.
- [**공서**] 허공에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전하는 방법.
- [**제스추어**]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사물의 형태, 감정, 의사 등을 전달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는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사용해 문자로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신·아와지대지진을 경험한 농인의 수기

(고 타카히라 스에히로씨/코베시 나가타구)

1995년1월17일 한신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코베에 있는 시영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아내도 저와 같은 농인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는 아내와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큰 진동으로 인해 옷장과 불단, 화장대 등이 쓰러지고, 방안은 깨진 유리가 산란하는 등 엉망이 되었습니다.쓰러져 있는 가구를 피해 아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대피했습니다.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나 연기가 자욱했습니다.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있어서 서로 도와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시영주택에 같이 사는 동생부부가 지정대피소로 대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그리로 향했다피했습니다.대피소는 20명 정도로도 딱 찰정도의 공간 밖에 안되어, 누울 자리도 없이 좁아서 앉은 채로 잤습니다.다음 날부터 식량 배급이 있었지만 매일 빵뿐으로, 모두 피로가 쌓여 갔습니다.아내도 수척해지고 건강상태도 나빠졌으나, 가까운 니시시민병원은 무너져버려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다른 병원도 불타버려서 속수무책이었어요.이러한 상황에 청인들은 배급을 달라고 호소를 한다던가 주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어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농인인 저는 배급을 해 달라고 호소하지도 못하고, 정보도 얻을 수가 없어서 늘 불안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대피소에 수화통역사가 왔습니다.가슴에 「수화통역 자원봉사자입니다. 들리지 않는 분들을 위해 통역해 드립니다」라고 쓴 표지가 있었습니다.「곤란한 일이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베 농인하우스에 가보세요」라는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수화로 소통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가설주택의 추천에 당첨되어 4월22일에 니시구에 있는 가설주택으로 옮겼습니다.주민들은 각 지역에서 온 청인들 뿐이었습니다.자치회가 생겨서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도 생겼습니다.각 가정마다 집회나 행사 등에 관한 안내지가 배부되어서 참가할 수 있었어요.이를 계기로 농인 부부인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물품교환 등을 통해 동네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매우 기뻐했습니다.

청인들은 재해가 발생 했을 때 바로 대피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경보나 방송을 듣지 못합니다.자치회나 반상회가 「저 집에는 농인이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가까이 사는 분이 비상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비상상태가 일어났을 때 비상열쇠로 집에 직접 들어가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 농인들은 안심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카히라 스에히로씨는 2008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원고작성시에 유족과 고베 농아인협회 관계자가 협력해 주셨습니다.[지지 않는다! 부흥의 등불을 찾아서
청각장애인 구호활동기록
「한신·아와지대지진 청각장애인 현대대책본부 발행~」
이재민 좌담회기록으로 부터 발췌 및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타카히라씨가 윗글에서 제안한 비상열쇠 시스템은 나고야시 미도리구의 모리노사토소 자치회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주민의 비상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활동입니다.

音のない3.11

被災地にろう者もいた

소리없는 3.11
지진피해 지역에도 농인이 있었다

스터디 가이드

| | |
|--------|---|
| 발행 | 2013년 2월 27일 |
| 저자 | 이마무라 아야코 |
| 협력 | 오스기 유타카 혼다 에이코 미하라 쓰요시 도이 요시히코 |
| 타이틀 활자 | 후루짱 |
| 사진 | 마쓰모토 쿄우지 |
| 디자인 | 아사쿠라 야스코 |
